

닭진디를 퇴치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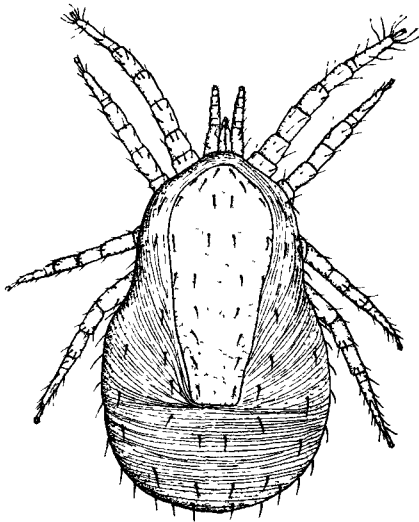


김 성

저는 부화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으로 이번에 체험한 와꾸모(닭진디 : Common chicken mite)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저의 양계경력은 고향의 과수원에서 부업으로 시작했을 때 부터 지금까지 8년가량이 됩니다. 지난 76년 9월경 동료가 담당하는 계사(평사)에 닭진디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 저희들은 알고 있는 대로 마라치온 유제 1,000를 수회에 걸쳐 살포하여 겨우 구제를 했읍니다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77년 8월 하순에 3 계동, 10월하순에 1 계동 두차례나 발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닭진디를 발견했을때 닭몸에는 물론 이미 케이지 틈틈에 까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차로 네구본과 아산톨을 각각 600배로 혼용하여 두차례 살포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심하던 끝에 고향

에서 사용하던 농약중에 좋은약이 없을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성이 약하고 속효성인 DDVP, 디프테렉스 세빈수화제(요즈음은 세빈과 같은 것으로 마빈, 다빈 등이 있음)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DDVP는 훈증성효과를 가진 농약으로 닭의 호흡기에 장애를 가져올 것 같아 보류하고 디프테렉스는 침투효과가 강해 구제효과는 클지 모르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빈은 접촉제이므로 닭의 피해가 적을 것 같고, 독성도 BHC의 약 1/10정도로 타약제보다 인축에 안전한 농약이 되리라 생각해 결국 세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회에 걸쳐 세빈투여의 실험을 한 결과가 예상외의 아주 좋아 담당기사님께 세빈수화제를 사용할것을 건의 했더니 기사님께서도 실험결과를 들으신후 캐히 세빈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농약살포에 주의해야 할 점은 마스크,



고무장갑, 긴소매옷과, 긴바지의 착용. 노출된 피부는 비누로 잘 씻을것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뒤 먼저 세빈 100g을 소량의 물에 희석하여 이 약물을 준비해둔 54ℓ (3 말)의 물에 잘 희석시킵니다. (600배) 이어 분무기의 이상 유무를 잘 살린뒤 급이기, 급수기에는 최대한 약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구를 정확히 조준하여 오물이나, 케이지다리 틈사이등, 구석구석 닭진디가 서식하기 좋은 곳을 중점적으로 충분한 약량을 살포했습니다. 살포하기전 닭진디가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

편집자 註

닭진디는 약 2mm정도의 작은 진드기로 주간에는 틈바구니나 건조한 계분 밑에 숨어 있다가 야간에 닭 몸에 붙어 흡혈한다. 이때 닭은 자지도 못할 뿐 아니라 흡혈에 의한 빈혈, 발육지연 체중의 감소로 산란이 저하된다. 흡혈과 증식은 봄부터 여름에 일어나고 겨울철에는 계사의 벽, 기둥

다. 살포를 끝내니 닭깃에 약물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2,700수용 케이지계사에 약량은 162ℓ (9 말) 시간은 2 인용 고압식 분무기로 2시간 30분이 필요했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계사를 돌아보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수 없었습니다. 먼저살포한 곳의 닭진디는 완전히 죽어있었고 닭몸에 서식하던 것까지 완전히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계사를 관찰했으나 어떠한 곳에도 닭진디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 1회 살포에 완전구제가 이루어 졌읍니다 폐사율은 전과 변화 없었으며 산란율이 약 2%저하 되었으나 이는 약해라기 보다는 작업과정의 스트레스 때문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도 많은 양계인들이 닭진디의 구제에 골치를 썩히 실것을 생각할때 이 조그마한 체험담이라도 알려드려 양계업계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빈은 이외에도 닭이 쥐빈대, 벼룩등에도 효과가 좋고 경제적이어서 여러가지로 유익하실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양계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셨을때 이렇게 상호간에 경험담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3리 천호부화장>

같은 틈바구니에 숨어 월동하나 보온된 환경하에서는 겨울철에도 번식하면 흡혈을 하지 않아도 8개월이상 생존한다. 알에서 성충이 될때까지는 8-9일이 소요되며 살충제로 일반적으로 마라치온 다이어지는 네구분등이 있다.